



# 하상주보

2020년 4월 12일 (가해)

파스카 성야

제1794호

##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파스카 초 점화, 파스카 찬송

##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 (또는 1,1.26-31)

**화답송** | 시편 104(103),1-2,5-6.10과  
12.13-14,24와 35(◎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은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걸듯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은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제3독서** | 탈출 14,15-15,1

**화답송** | 탈출 15,1,2,3-4.5-6.17-18  
(◎ 1,2)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5-6(◎ 3)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7독서** | 예제 36,16-17,18-28

**화답송** | 시편 42(41),3.5,7,12,13;  
43(42),3.4 (◎ 42[41],2)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서간** | 로마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음** | 루카 24,1-12

**제3부 세례 전례** |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 성찬 전례**

# 주님 부활 대축일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산세폴크로 미술관, 이탈리아

**[제2독서]**.....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 시편 118(117), 1-2.16-17.22-23  
 (©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봉헌성가: [212] 너그려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Jesus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He is alive and with us!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lthough the celebration of Easter this year will be like no other due to the pandemic, the truths of this sacred day remain constant and unchanged. By His Cross and Resurrection, Jesus conquered the power of sin, darkness, suffering and death. We celebrate His victory on Easter as we proclaim together that Jesus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He is alive and with us!

In the midst of these unsettling times for all of us, I encourage you to share the Good News of Easter with others, as well as your love for God and your trust in Him. Show them that you find true happiness in following His ways and commands. Continue to share your time and resources with others, especially the weak, the vulnerable and those in most need. In all these ways, you help to reflect the presence of Christ to them.

With faith and in joyful hope, entrust your families, our nation and our world to Our Lord Jesus and His saving power. May He bless you and your families and fill you with His peace at Easter and always.

Sincerely in Christ,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that reads "Michael F. Burbidge".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flowing style.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리고 있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시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미사와 함께 성체를 모시지 못해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성당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이라는 소중한 훌륭한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로 일치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020년 부활절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완성되었듯이, 이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깊이 체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위한 전대사

교황청 내사원은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이들을 보살피는 이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허용했다. 아울러 '중대한 필요'에 처한 이 시기에서 일괄사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직면한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신자들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도를 통해 그들을 보살피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내용은 3월 20일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Mauro Piacenza) 추기경과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Krzysztof Nykiel) 몬시뇰이 서명하고 반포한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담겼다.

내사원은 교령에 관한 설명에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이 현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실제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일괄사죄”를 베풀 가능성, 곧 “개별 고백을 먼저 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신자들에게 일괄사죄를 베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비롯해 격리돼 있는 이들, 의료종사자들, 확진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가족 등은 단순히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기만 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곧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뜸뜸이) 방문하거나 성체조배 하기 △최소 30분 동안 성경을 읽거나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바치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Coronica della Divina Misericordia) 바치기 △하느님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위로, 주님께서 불러들이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청하기 등이다.

전대사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병자성자와 노자성체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십자가상이나 십자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교황청 내사원장은 일괄사죄가 필요한 경우 “사제는 가능한 한 교구장 주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하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고 일괄사죄를 거행했다면, 가능한 빨리 (무슨 중대한 이유 때문에 공동으로 사죄했는지) 교구장 주교에게 가능한 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차원과 관련해 교구 관할

지역에서 일괄사죄를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대한 필요’로 결정할 권한은 항상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고 교령은 강조한다. 예를 들면 죽음의 위험에 임박한 코로나19 확진자 신자들이 입원한 병실 입구에서, 사죄경이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수단들을 적절히 사전에 준비하여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내사원은 “필요한 곳에서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환자들과 임종자들에게 영적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존중하는 자발적인 토대 위에서 ‘특별 원목 사제’ 그룹을 구성할 가능성과 기회”를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내사원은 “개별 신자들이 고해성사의 사죄를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곳에서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통회’를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완전한 통회는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표현(참회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경우)이고, 고해서약(votum confessionis)이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죄도 용서받게 해 준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52항).

내사원의 교령은 “한동안 우리 모든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보이지 않으며 서서히 퍼지는 질병으로 위협받고 있는 모든 인류는 고통에 찬 두려움, 새로운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적 윤리적 고통이 나날이 확산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이 시기처럼 교회가 성인의 통공의 힘을 체험한 적이 없었고, 십자가에 처형되시어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와 서약, 특히 신자들 없이 사제들에 의해서 매일 거행되는 미사 봉헌이 높이 올려진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착한 어머니로서, 자비의 어머니요 병자들의 구원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의 전구를 청하며(성 요셉의 보호 아래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같은 채찍질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http://www.stpaulchung.org/mass.html>

- 성 정바오로 성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당 미사를 생중계**하니 신자분들은 가정에서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 2. 26-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사에 대하여

- **병자성사 및 병자 영성체** :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혼인 및 장례예식** : 혼인예식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과 장례예식은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 참석하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 : 영적(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지닌다면 성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업무 안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4월 15일(수) 오전 6:15-6:45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4월 18일(토) 오전 8:00-8:30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3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